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 보고

최종보고 제출일 : 2013. 01. 09.

성명 : 朱洪奎

소속 : 韓國朝鮮文化研究

파견형태 : P·D

연구과제명 : 고구려 유적·유물에 관한 최신 성과의 조사

(1) 파견처의 기본 정보

한국 안양시에 소재한 중부 고고학 연구소/ 김무중 소장.

(2) 파견기간

출발일 : 2012년 10월 9일

귀국일 : 2012년 12월 21일

총일수 : 총 72일

**\* 주요 연구성과**

(1) 당초 계획의 개요 :

이번 조사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구려 및 고구려계의 유적과 유물에 관한 최신의 연구성과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고구려 유적의 경우는 최근에 활발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견학과, 서울에 있는 고구려의 보루 유적에 관한 새로운 발굴조사를 견학함으로써 인해 고구려 고고학 연구의 최신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조사에서 보고된 고구려계 유물에 관한 조사도 행하기로 했다.

(2) 실제로 달성한 성과 :

이번 조사는 파견처인 중부 고고학 연구소의 배려에 힘입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산성인 덕진산성의 발굴조사 현장을 견학할 수 있었다. 이 견학으로 인해 고구려 산성의 축성방법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덕진산성에서는 고구려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덕진산성의 발굴현장을 견학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고구려의 보루인 동파리 유적에 관한 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기와나 토기로 보이는 유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평기와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제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이다.

그 이외에도 고구려계로 불리는 마구나 장신구에 관해서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울산 원자력 발전소내의 발굴현장, 경북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등의 소장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고구려 문물의 지역적 확산과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도 성과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 (3) 차후의 연구 전망 :

지금까지 고구려 산성의 축성방법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유적에 관한 조사가 진행됨에 의해 고구려 산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구려 주거지의 발견예가 적은 관계로 연구성과가 적었으나 이번에 견학한 유적에 관한 조사에 의해 고구려 주거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질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고고학 연구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연구는 기와연구이지만 이번의 지표조사로 인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제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고구려의 기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 기와 연구가 더욱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로 얻은 정보에 의해 고구려 장신구의 지역적 확산과 전래에 관한 연구도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